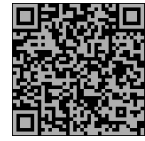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 편집: 본당 편집회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연중 제16주일 (2024년 7월 21일)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주리라.” (예레 23,1-6)



양떼와 함께 있는 목동, 빈센트 반 고흐(1884)

출처: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마르 6,34)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믿나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1

나는 믿나다

연중

mf Alb. Gereon Stein

1. 나 는 굳 게 - 믿 나 - 이 다 -
2. 주 의 계 명 - 깊 이 - 새 겨 -

진 실 하 온 - 주 님 말 씀 성 세 때
바 른 길 로 - 나 가 리 다 주 여 세

에 - 드 린 - 맹 세 - 충 실 하 게 - 지
상 - 품 파 - 중 에 - 우리 보 호 - 하

f

키 리 다 주 께 서 나 를 택 하
옵 소 서 하 느 님 백 성 된 우

여 교 회 로 부 르 시 - 오
리 주 님 께 의 탁 하 - 오

니 - 진 심 감 사 - 하 나 이 다
니 - 영 원 상 속 - 주 옵 소 서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미래의 임금 메시아

(예레 23,1-6)

1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 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2 -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3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4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 주리니, 그들은 더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5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썩을 돌아나게 하리라. 그 썩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6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오천명을 먹이시다

(마르 6,30-34)

그때에 30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31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32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3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주님께서 읊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욥 38,1) 말씀으로 기도하며, 풍파가 심할 때에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느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NV1]
-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욥 38,11) 말씀으로 기도하며, 조직화, 고도화된 사회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는 건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멈춰야 할 때를 잘 알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NV1]
- “예수님을 깨우며” (마르 4,38),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마르 4,39) 말씀으로 기도하며, 겁이 났을 때 일단 예수님을 깨우고 보자는 생각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떠올랐으며, 그렇게 기도 안에서 편안하게 예수님과 관계가 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NV1]
-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르 4,40) 말씀으로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민자로, 또 엄마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저의 삶 속에서 오롯이 예수님께 의탁하여 하느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 나가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NV1]
-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 4,41),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NV1]
-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욥 38,11)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께서 이 말씀처럼 ‘당신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모호하게 말씀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 후 하느님께서 항상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NV2]
- “고요해졌다.” (마르 4,39) 말씀으로 기도하며, 풍랑 속과 같은 힘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반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느끼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NV2]
-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욥 38,11)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이를 먹으면서 나의 사람 됨됨이를 바로 하려면 나의 지나친 감정이나 행동들을 멈출 줄 알아야 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내 모습을 반성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NV2]
-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마르 4,35)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느님과 함께한다고 믿으면 평화로움과 고요함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RC3]
-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마르 4,38)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C3]

-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르 4, 40) 말씀으로 기도하며,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친다 해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RC3]
- 트로이 2반에서는 지난 6월 8일에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좋은 날씨,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활동 등으로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런 멋진 날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R2]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였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 셀라책 122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SCAN ME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122

O. Ahnfeldt

1. 날 마 다 숨 쉬는 순간 마 다 내 앞 에 어 려운 일 보 네 주 님
 2. 날 마 다 주 님 내 곁 에 게 셔 자 비 로 날 감 싸 주 시 네 주 님
 3. 인 생 의 어 려운 순간 마 다 주 의 약 속 생 각 해 보 네 내 맘

5 앞 에 이 몸 을 말 길 때 슬 픔 없 네 두 려 움 없 네 주 님
 앞 에 이 몸 을 말 길 때 힘 주 시 네 위 로 하 시 네 어 린
 속 에 믿 음 잃 지 않 고 말 씀 속 에 위 로 를 얻 네 주 님

9 의 그 자 비 로 운 손 길 항 상 좋 은 것 주 시 도 다 사 랑
 나 를 품 에 안 으 시 어 항 상 평 화 를 주 시 도 다 내 가
 의 도 우 심 바 라 보 며 모 든 어 려 움 이 기 도 다 흘 러

13 스 레 아 픔 과 기 뽐 을 수 고 와 평 화 와 안 식 을
 살 아 숨 을 쉬 는 동 안 살 피 신 다 약 속 하 셧 네
 가 는 순 간 순 간 마 다 주 님 약 속 새 겨 보 니 다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 성사 후기

지난 6월 2일 11분의 새 신자분들이 거룩한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리 새 신자분들의 세례성사 후기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감동과 익숙해져 버린 신앙의 처음을 떠올리는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진 그라시아)

세례를 받기 전 교리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과연 이것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으나, 선생님의 배려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보다 더 예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있는 자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비와 은총 베풀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지영 베로니카)

5개월 교리 수업 후 받은 세례는 성당에서 손님 같았던 저를 성당의 일부가 되게 해 주었고, 제 삶에서 잊어버렸던 하느님을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민용 세르지오)

세례성사를 받는 그 거룩한 자리에 제가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화해와 용서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송미현 아녜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업을 거듭할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타지의 삶이지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식 신자로서 항상 평화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혁 크리스토퍼)

꼭 찬 5개월의 예비자 교리 참여가 쉽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받는 날 신부님과 대모님께서 주시는 안수의 손길을 아직도 생생하게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 그대로 잘 간직하여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지현 이레네)

세례식 당일은 정신이 없었지만, 며칠이 지난 지금 소감은 마침표 (.Period) 입니다. 작년 9월 부터 주일에 성당을 나갔지만, 저는 교리를 들으며 세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먼저 세례와 첫영성체, 견진성사를 받아 매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가족 중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도 가족들도 세례를 받아 하느님 안에 한 가정이 되면서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하느님 안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기쁨으로 마침표가 머리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완수 데이비드)

제가 세례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과거와 현재의 크고 작은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정신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가난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줄리아나)



모든 감사한 분들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알게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가톨릭 신자로서의 새로운 삶이 기대됩니다. 받은 사랑으로 행복했으니, 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임지은 토마스)

항상 주변에 머물렀던 하느님을 이제서야 알고 싶어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 발을 내디뎠지만, 이 발걸음 끝에 계신 하느님 곁으로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장윤영 유스티나)

세례성사라는 하느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총으로 인해 저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 다음 견진성사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최국영 레오)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교리 선생님의 가르침과 주일미사를 통해 점점 명확해지고 깊어짐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세례식에서 신부님과 모든 본당 형제자매님들의 축복 속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사히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교리 선생님과 선교부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세례의 축복을 받은 이 순간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홍봉진 요셉)





2024 6월 성경통독 월례모임 레위기 말씀과 함께

왜 거룩함을 계속 강조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이니, 하느님을 대할 때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상대방을 거룩한 존재로서 존중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으리라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되돌리는 ‘희년’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느님의 소유이니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집착하지 말고, 세상 만물의 원천인 하느님께 대한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각자의 삶을 통해 거룩함을 완성해 가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글 | 최봉열 유크스티노

십오 년 전쯤 성경 공부를 위해 레위기를 처음 읽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금에 비해 처벌이 잔인하고 특히 이방인과 장애인, 여성을 하대하는 시각이 아주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경 공부 때도 이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불편하게 여기며 읽던 중, 문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조건 없이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어 그 당시 레위기가 정해 놓은 ‘부정’에 대한 개념을 과감히 깨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 피부병(나병) 환자, 창녀 등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가까이하시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놓은 안식일에도 그들의 육체와 마음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또한 목자 없는 양들 같았던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본당 피정에서 ‘You Are Special’(by Max Lucado)라는 만화영화를 봤습니다. 영화에서 나무 인형들은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 별점과 별점 스티커를 서로에게 붙이며 별점이 많을 경우 으스스대고, 별점이 많을 경우 기가 꺾여 삽니다. 그러나 별점만 많은 주인공 나무 인형이 자기를 만든 목수를 만나 그가 자기를 만들 때 쏟아부은 사랑을 알게 되면서 자기 본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후로는 별이든 벌이든 어떤 스티커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피정 후, 나는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엄청난 양의 별점과 별점 스티커를 붙여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분리와 차별을 만드는 사회의 경쟁 구도를 당연시하고 그 승자들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최선이 과연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일까는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당시 사회의 편견을 넘어 하느님의 뜻인 사랑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낙오자가 되더라도 사랑과 연민의 하느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와 자유로 향해갈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스스로에게 다시금 물어봅니다. — 글 | 강서린 로즈마리

하느님께서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그 거룩함을 삶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미사드리는 것 등등은 제게는 좀 주입식 단답형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순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이르자 그냥 기도로 성령께 의탁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께 도와주십시오고 기도를 청하는데, 성령 칠은 중의 하나인 하느님을 두려워함. 곧 ‘경외심’의 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은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생활 안에서 겪는 갈등이나 고민, 예를 들어 부부싸움이나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등이 있을 때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만약 네가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과 눈 마주하면서 네가 옳다고 당당히 토로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느님의 법을 따르도록 노력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쓰다 보니 화가 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억울한 오해에 놓일 때도 나의 인간적인 반응을 다소 부드럽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FEAR OF GOD’의 은사를 청하며 순간순간에 거룩해지는 연습을 몸에 익혀 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달간의 숙제가 생겼습니다. — 글 | 최승원 엘리사벳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법규와 규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읽으면서 ‘뭐 이렇게까지...’하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이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염둥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잔인하고 힘든 광야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느님께선 죄에 빠지지 말고, 조금만 참고 내가 일러준 대로 잘 지키고 따라오면 희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낍니다. 광야의 삶이 다하는 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글 | 김경선 헬레나

레위기를 마무리하며...

성경을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1월에 시작된 성경 통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세 번째 도전인 레위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탈출기를 정독하면서도 이해의 위기는 있었으나, 레위기 역시 여전히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성결 법전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규정과 이에 따른 축복과 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신기하고 새롭다는 생각을 했고, 구약의 제사법 정결 규례와 부정 규례를 통해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회복하고 이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에서 행할 제사에 관한 매뉴얼을 설명하시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을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바치는 행위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지침을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여러 상황에 부딪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우신 이런 규칙들을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지키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미처 알지 못한 크고 작은 죄들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반성해 봅니다. — 글 | 고정민 엘리사벳